

한국화의 '새로운 길'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수묵신작로', 12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전통기법부터 현대 표현법까지
'변화·모색·확장·변신' 4개 섹션
이응노·박생광 등 28명 40점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역 공립 미술관들과 함께 소장품을 중심으로 순회 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집한 한국화 작품 중 기법, 재료,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험이 반영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기획했다. 전시 타이틀 '수묵신작로(水墨新作路)'는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꽤 적절한 이름이다.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수묵신작로'는 변화의 시작, 한국성의 모색, 한국화의 확장, 한국화의 변신 등 모두 4개 섹션으로 구성해 남관·박생광·서세옥·이응노·김호득·윤애근 등 28명 작가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반적으로 전시작들은 수묵, 채색, 필법 등 한국화의 전통적 수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험적 방법을 탐구하고 서양미술과 현대미술의 표현법까지도 수용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게 다가온다.

'변화의 시작'에서는 흔히 수묵화 또는 전통채색화로 인식하기 쉬운 한국화 분야에 추상 표현과 서양화적 요소를 가미해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수묵신작로'전이 오는 12월 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내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응노의 '인간 추상'과 '글자 추상', 서세옥의 '춤추는 사람들', 권영우의 '화살별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송수남·정찬영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한국성의 모색' 섹션에서는 화려한 색채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수묵 중심의 화단에서 채색화가 주목받았던 1980년대 현상을 짚어본 섹션으로 민숙, 민화, 무속, 역사 등의 소재를 통해 한국화의 정체성과 방향을 모색한 작품을 중점적으로 전시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은 전통적인 오방색과 고구려 벽화, 전통 단청의 채색법 등 전통 색채를 활발하게 활용하며 독특한 작품을 생산해냈다.

전시에서는 무녀 등 한국의 토속적 소재와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박생광 작가를 비롯해 김근중·남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현대적 요소가 폭넓게 포함되면서 개성있는 화면을 연출하며 '탈장르'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한 작가들의 작품은

'한국화의 확장'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김선두 작가의 풍경화는 기존 한국화에서 보여주는 풍경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며 과감한 면 분할과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 민경갑의 '무애'도 인상적이다. 또 한지에 수묵담채로 그린 이철량의 '바람소리'는 단순한 조형성이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색에 잠기게 한다. 그밖에 김호득·송계일·송수련·신명범·이길원·황창배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한국화의 경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국화의 변신'은 가장 흥미로운 공간이다. 평면 작업에서 벗어난 입체적 작품이 눈에 띄고 금속·유화·천·목재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실험적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 전통을 '재해석'해 새롭게 변용한 작품 등이 눈에 띈다.

김보민의 '가회도'는 모시천에 수묵담채와 테이프를 서울 가회동 풍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친근한 느낌이 든다. 펜과 먹, 종이 등 아주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유호호 작가의 작품은 즐거운 놀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 '푸-하'는 한글 '푸'와 '하' 두 글자를 수만번 반복해 완성한 산수화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밖에 윤애근·안성금·이인·정택영·심정자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세옥 작 '춤추는 사람들'

광주시립미술관,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

'파블로 피카소' 주제... 28일 마지막 온라인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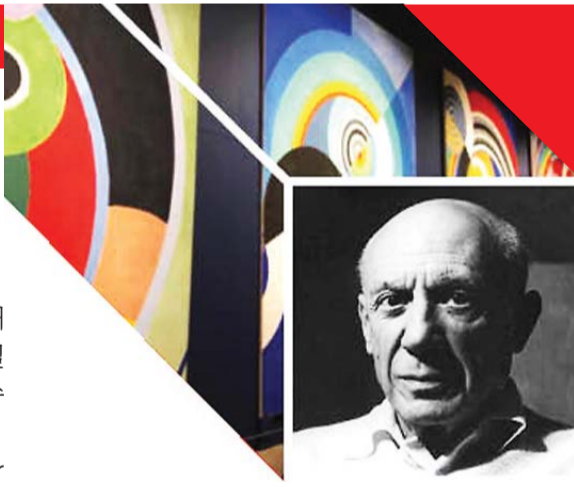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작품 해설 전문가 이창용 강사를 초대해 제3기 토요문화이벤트 '그림 읽어주는 남자' 3강 마지막 강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진행한다.

과거 2년간 미술관 대강당을 가득 채워 열기를 보여주었던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의 올해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좌로 진행 중이다. 9월 레오나르도 다빈치, 10월 미켈란젤로 부오나

로티에 이어 28일(오후 3시-5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파블로 피카소-미술역사상 가장 나쁜 남자,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천재'다.

오는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200명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 강의실 'ZOOM' 링크메일을 받아 입장하면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제 미로 플랫폼 '광주 같이~가치!'

독일·중국 등 12명 참여...25일까지 무등갤러리·미로카페

'광주와 외국 작가들의 교류를 꿈꾸다.' 광주시 동구청(은 사)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대표 노정숙)와 함께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서 '미로창작플랫폼 2020-광주 같이~가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국제 미로 플랫폼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광주 출신 작가와 독일 등 교류 국가 작가를 초청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작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교류국가인 독일과 중국 텐진 작가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가,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 작가 3명 등 모두 8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업에 매진했다.

올해 사업의 결과물 전시회가 오는 25일까지 무등갤러리와 미로카페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작들은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각자의 예술적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이다. 전시에는 8명의 참여작가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4명의 작가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교류국 독일 초청 작가 보도 하트비히(방송작가 겸 사운드아티스트)는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찾았던 광주 구석구석을 방문, '80년 광주와 40년 후의 오늘의 광주'라는 이름으로 이카이브한 음향설치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품은 그가 근무하는 독일 국영방송에서도 일부 방영될 예정이다.

또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광주 출신 박인혁

작가는 '여성과 역사성'을 주제로 할머니의 유품인 솜이불을 활용해 작업한 '할머니의 자화상'을 선보이며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정재림 작가는 통독되기 전 독일지역의 총탄자국과 5·18 현장은 전남 도청의 총탄자국 흔적을 탁본한 작품을 전시한다.

또 2023년도 교류지역인 중국 텐진의 석뢰 작가는 '사물의 명암, 인간의 양면성'을 주제로 수인판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육사사는 '인간의 의지와 실천'을 주제로 동판화 작업을 선보인다.

광주지역작가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은선(한국화), 정혜진(서양화), 김라유(디자인) 작가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김화순·박성완·신양호·정혜영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보도 하트비히 작 'Echo-of-Spring'

피아니스트 조성진, 온라인서 만나요

28일 예술의전당 전국투어 앙코르 무대 유료 생중계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도시 리사이틀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간 피아니스트 조성진 <사진> 공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공연기획사 크레디아는 28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투어의 마지막 무대인 앙코르 리사이틀을 네이버TV의 크레디아TV 채널을 통해 유료로 실황 중계한다고 밝혔다.

조성진이 리사이틀 무대를 국내에서 실황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받은 뜨거운 성원과 호응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자 한 결정이다.

이번 앙코르 공연도 예매 시작 후 곧바로 매진되면서 다시 한번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리사이틀도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됐었다.

앙코르 무대에서 조성진은 지난 4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저녁 공연 프로그램이었던 슈만의 '유모레스크'와 시마노프스키의 '마스크',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한 번 더 연



주한다. '유모레스크'는 슈만의 대표작 중 하나다. 조성진은 17살 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선보인 이후 9년만에 다시 연주하는 곡으로 달라진 해석의 변화가 기대된다. 두 번째 곡인

'마스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연으로 접하기 어려운 곡으로 조성진은 이 곡의 매력에 대해 "감각적이고, 컬러풀하면서, 드라마틱"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앙코르 공연의 피날레는 '피아노 소나타 b단조'가 장식한다. 온라인 실황 중계 티켓 가격은 1만원으로 네이버TV 크레디아tv 채널에서 온라인 후援으로 예매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귀원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